

전북도-군산시,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유치 성공

국내외 청소년 활동 중심지 될 기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와 연계 효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내년 5월 3일간 진행

전북도와 군산시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유치가 성공했다.

박람회는 여성가족부와 전북도-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관 아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내년 5월에 3일간 진행된다.

이로써 전북도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와 연계해 국내외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지난 2006년부터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일반 시민 등 15만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다채롭게 색다른 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의견개진 및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도와 군산시는 200여개의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문화와 안전, 시사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강을 비롯해 공모전, 포럼, 전시회, 공연 등 화려하고 차별화된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준비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매력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 및 입상격려회가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김승환 교육감 및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전북체육관에서 열렸다.

군산시'의 매력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관계기관·단체와 공동으로 IT팀을 구성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018년 박람회 준비를 위해 행사 진행 및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2018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 및 청소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도가 청소년 활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도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군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근대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806억원 투입 추진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북도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주택개량사업으로 778억원의 주택개량용자금을 확보해 도내 농어촌지역 약 1,300여동의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28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1,221동의 빈집을 정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는 1월중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고 있다"며,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시군 지역현안 챙기기 본격 착수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 개최... 전북 뭍 찾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공조 논의

전북도는 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현안 해결과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23일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도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은 연초부터 지역현안 해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하고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의 중요성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 구축,

전북 뭍 찾기 추진,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논의가 이뤄졌다.

도와 시군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조정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인 공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도와 시군의 긴밀한 공조 시스템 구축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한 유

구색이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략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 뭍 찾기'에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군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등 3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1/4분기에 적극 집행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인재용 기자

익산시·남원시·고창군·진안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고창군,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을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시군의 재난관리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재난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선진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 재난관리평가는 시군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 재난관리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 등 41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창군은 폭염대책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재난관련 자체교육 실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익산시는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

역 관리실적과 지진종합대책 추진에서, 남원시는 안전신문고 활성화 실적과 재난대비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에서 진안군은 안전한국 훈련 실적과 재난관리조직 인건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장수군은 재난업무담당자 책임과 역할 숙지 정도 등 개인역량 달성도는 높았으나,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사가 적절 미비와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대 실적 저조 등 기관역량에서 달성도가 낮았다.

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창군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국고지원 및 포상 등 행정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4개 선정

전북도는 23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총 4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최종 3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북도는 4개로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총사업비의 70%~80%

를 최대 30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최종선정에 이르기까지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대응했다.

연구용역 및 시군 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생활권 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한 결과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은 착수 워크숍, 사업비 최종 확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3일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 관계자가 전북 생활권 현장을 방문해 지역발전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재용 기자

도,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에 60억원 투자

내수면 양식을 선도하는 전북도가 전국 1위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현황은 643건에 265ha로 전국(2,525건 851ha)의 31.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내수면 양식 어류 중 향어 1,342톤, 미꾸라지611톤, 동자개173톤, 메기 1,849톤, 금붕어34톤, 비단잉어 18톤으로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수면 양식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사업에 약 60억원을 들여 내수면 양식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여접 추진하는 내수면 양식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환경이 악화된 노지양식장에 황도를 직접 뿌림으로서 해독력과 제독력 및 양식장 수질개선을 통해 양식 어류의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